

예비 보건교사의 교직선택 동기, 교사효능감, 교직수업 만족도 연구: 교직선택 동기 그룹별 비교를 중심으로 *

김보경·정선이
서울여자간호대학교

Comparison of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Teacher Efficacy, and Satisfaction of Teaching Class by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Group among Pre-Health Education Teachers

Bo Kyung Kim·Sunei Joung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teacher efficacy, and satisfaction of teaching class of pre-health education teachers and compare the teacher efficacy, and satisfaction of teaching class by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group.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54 pre-health education teachers studying the teaching curriculum in 1 college located in S city.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cluster analysis, ANOVA and Kruskal-Wallis using SPSS/WIN 21.0 program.

Results: The average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teacher efficacy, satisfaction of teaching class were above medium. After cluster analysis, 3 distinct groups emerged: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high group,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middle group,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low group. And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acher efficacy, satisfaction of teaching class according to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group.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affect the teacher efficacy, satisfaction of teaching cla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 이 논문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술 연구비 지원(snjc2017-024)에 의해 수행되었음
접수일 : 2017년 10월 31일, 수정일 : 2017년 12월 20일, 채택일 : 2018년 02월 23일
교신저자 : 정선이(03617 서울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38)

Tel: 02-2287-1716, FAX: 02-395-8018 E-mail: poka80@naver.com

Key words: pre-health education teacher,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teacher efficacy, satisfaction of teaching class

I. 서론

최근 비만, 스트레스, 흡연, 음주, 성 건강 등 건강 문제의 다양화와 건강권 및 복지에 대한 인식 확대로 학교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송영희, 2011), 이에 따라 학교 보건교육의 핵심 주체인 보건교사의 역할과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권은정과 김숙영, 2017). 또한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이 강화되면서 보건교사는 의료인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보건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듯 보건교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하게 되는데(권은정과 김숙영, 2017), 이때 보건교사의 역할과 태도는 학교 보건교육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보건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스트레스와 소진을 감소시키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요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동기는 직무와 관련된 개인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역동적 힘(Pinder, 1998)으로, 교사들의 교직선택 동기는 교사의 직무수행 및 태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이쌍철 등, 2012)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직이 자신의 적성에 맞고 가르침 자체가 좋아서 교직을 선택한 내재적 동기가 높은 경우,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높은 직무만족감을 가지는(Chuene 등, 1999) 반면에 사회적 지위, 급여, 직업의 안정성 등과 같은 외재적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 의욕 및 조직헌신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Hanson, 1996). 한편 강양희(2006)와 최주연(2006)의 연구에서는 외재적

동기가 직무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외재적 동기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장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교직선택 동기는 개인이나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동기 수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교직선택 동기와 더불어 보건교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되는 중요한 변수로 교사효능감을 들 수 있다. 교사효능감은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지에 대한 신념으로, 일반적으로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자신감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김희정 등, 2009; Bandura, 1983). 또한 이충란과 권낙원(2008)의 연구에서는 보건교사의 역할 수행이 실제 지식과 기술보다 역할 수행의 동기적 기제인 교사효능감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교사효능감은 보건교사가 직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 보건교사는 간호사라는 비교적 뚜렷한 진로와 목표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한 후에 교직을 선택하게 되므로, 교사를 목표로 대학에 입학한 사범대학 출신의 교사들과는 교직선택 동기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 예로 조남근과 양윤종(1998)은 사범대학 출신의 교사는 내재적 동기가 강한 반면 비사범대 출신의 교사는 타인의 권유로 교직을 선택하는 수동적 동기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교직선택 동기는 교사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서(남궁미경, 2011; 최병임과 홍창남, 2013) 예비 보건교사와 사범대학 출신 예비교사의 교사효능감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직선택 동기와 교사효능감은 보건교사의 능동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보건 교사의 역할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대학은 능력있고 능동적인 보건교사를 양성해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즉, 예비 보건교사들의 교직선택 동기를 분석하고, 교직선택 동기와 교사효능감 및 교직수업 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효능감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되는지 밝혀냄으로써 예비 보건교사를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실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비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들도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가 많아 교사로서 교직관련 제반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이규영, 2015). 이에 본 연구는 예비 보건교사들의 교직선택 동기, 교사효능감, 교직수업 만족도를 파악하고, 교직선택 동기에 따른 교사효능감과 교직수업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보건교사들의 교직선택 동기, 교사효능감, 교직수업 만족도는 어떠한가? 둘째, 예비 보건교사들의 교직선택 동기 그룹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셋째,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라 교사효능감, 교직수업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 보건교사들의 교직선택 동기, 교사효능감, 교직수업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예비 보건교사의 선발 및 교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보건교사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S 여자 간호 대학교에서 교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2~4학년 대학생 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였으며,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와 동의서를 배부하였다.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었고, 설문조사가 끝난 후 설문지와 동의서는 연구자가 수거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및 불성실 응답 등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불성실 응답으로 간주되는 것이 없어서 5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교직선택 동기

교직선택동기 측정도구는 선행연구(Kyriacou, Kobori, 1998; Kyriacou, Coulthard, 2000)에서 교직선택 동기의 세 가지 유형(내재적, 외재적, 이타적 동기)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들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신정철 등(2007)의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이타적 동기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7문항의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직선택 동기가 높음을 의미하며, 이규영(20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 교사효능감

교사효능감 측정도구는 이충관과 권낙원(2008)이 보건교사에게 적합한 교사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수업효능감, 보건서비스 효능감, 업무대인관계 효능감, 지역사회연계 효능감의 4개 요인으로 구성

되었으며, 총 24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3) 교직수업 만족도

교직수업 만족도는 교직담당 교수 2인이 교직수업 및 교육과정 만족도, 교육만족도 등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들(김예진, 2015; 신정철 등, 2007; 한은숙, 김종두, 2003)을 바탕으로 학교 상황에 맞게 총 5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5개의 문항은 ① 교직수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 ②교직수업이 교육학 이론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③교직수업이 향후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지, ④교직수업이 학교현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⑤교직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실제 활용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직수업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

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수집된 자료의 정규분포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둘째, 교직선택 동기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사효능감, 교직수업 만족도의 차이는 분산분석(ANOVA)을 통해 확인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 각각의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해당하는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비모수 검정 방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54명으로 모두 여학생이다.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5.69세로 25세 이하가 31명(57.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6세-30세 14명(25.9%), 31세-35세 4명(7.4%), 36세 이상 3명(5.6%)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는 2학년 18명(33.3%), 3학년 17명(31.5%), 4학년 19명(35.2%)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
성별	여성	54(100)
	연령	
	25세 이하	31(57.4)
	26-30세	14(25.9)
	31-35세	4(7.4)
	36세 이상	3(5.6)
합계		54(100)
학년	2학년	18(33.3)
	3학년	17(31.5)
	4학년	19(35.2)
합계		54(100)

2) 연구대상자의 교직선택 동기, 교사효능감, 교직수업만족도

연구대상자의 교직선택 동기, 교사효능감, 교직수업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선 교직선택 동기는 1-5점의 점수 범위에서 평균 3.77±0.71점이었으며, 교직선택 동기의 세 가지 유형 중 외재적 동기의 평균이 4.19±0.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내재적 동기(3.80±0.91), 이타적

동기(3.30±0.95)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효능감의 경우, 1-5점의 점수 범위에서 평균 3.80±0.50점이었으며, 교사효능감의 네 가지 요인 중 보건의서비스 효능감이 3.97±0.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연계 효능감(3.77±0.61), 업무대인관계 효능감(3.75±0.55), 수업효능감(3.71±0.56)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직수업 만족도는 1-5점의 점수 범위에서 평균 3.86±0.85점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교직선택 동기, 교사효능감, 교직수업만족도 기술통계치

(N=54)

변수	하위 요인	M±SD
교직선택 동기	내재적 동기	3.80±0.91
	외재적 동기	4.19±0.67
	이타적 동기	3.30±0.95
	전체	3.77±0.71
교사효능감	수업 효능감	3.71±0.56
	보건의서비스 효능감	3.97±0.69
	업무대인관계 효능감	3.75±0.55
	지역사회연계 효능감	3.77±0.61
	전체	3.80±0.50
교직수업 만족도		3.86±0.85

2. 교직선택 동기 유형 분석

교직선택 동기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교직선택 동기의 세 가지 하부 요인인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이타적 동기를 군집변인으로 투입하고 워드(Wards) 방법과 제곱 유클리디안(Squared Euclidean) 거리를 사용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의 계수 변화폭 및 덴드로그램(dendrogram), 해석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3개 군집을 채택하였으며, 2

단계에서는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군집 1에 해당되는 인원은 10명(18.5%)이었으며, 군집 2의 경우에는 16명(29.6%), 군집 3의 경우에는 28(51.9%)명이었다. 교직선택 동기를 바탕으로 각 군집의 특징을 살펴보면, 군집 1은 교직선택 동기의 세 요인 중 외재적 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내재적 동기(2.37±0.60), 외재적 동기(3.90±0.77), 이타적 동기(1.75±0.42)의 값이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나 '교직선택 동기 낮음'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세 요인 중 내재적 동기가 가장 높았으며, 군집 1과 반대로 내재적 동기(4.79±0.32), 외

재적 동기(4.63±0.47), 이타적 동기(4.01±0.74)의 값이 모두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교직선택 동기 높음'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내재적 동기(3.74±0.34), 외재적 동기(4.05±0.63), 이타적 동기(3.45±0.46) 세 요인의 값이 전체 평균값에 근사하며, 군집 1과 군집 2의 중간에 위치하므로 '교직선택 동기 중간'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3.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사효능감, 교직수업 만족도 차이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사효능감과 교직수업 만족도의 차이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교직선택 동기 그룹별 교사효능감의 평균 분석 결과 네 가지 하위요인인 수업 효능감, 보건서비스 효능감, 업무대인관계 효능감, 지역사회연계 효능감 모두에서 '교직선택 동기 높음' 그룹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연계 효능감만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요인에서 '교직선택 동기 중간' 그룹, '교직선택 동기 낮음' 그룹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수업 효능감(F=5.25, p=.008),

보건서비스 효능감(F=3.60, p=.035), 업무대인관계 효능감(F=4.43, p=.017), 지역사회연계 효능감(F=4.32, p=.019) 모두에서 그룹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수업 효능감과 보건서비스 효능감의 경우 '교직선택 동기 높음' 그룹이 '교직선택 동기 낮음' 그룹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대인관계 효능감은 '교직선택 동기 높음' 그룹이 '교직선택 동기 중간' 및 '교직선택 동기 낮음' 그룹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연계 효능감은 '교직선택 동기 높음' 그룹이 '교직선택 동기 낮음'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직수업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직수업 만족도의 평균은 '교직선택 동기 높음' 그룹이 4.25±0.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교직선택 동기 중간' 그룹(3.82±0.74), '교직선택 동기 낮음' 그룹(3.32±0.37)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직수업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F=4.20, p=.020) 그룹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교직선택 동기 높음' 그룹이 '교직선택 동기 낮음' 그룹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사효능감과 교직수업 만족도 차이

변수	교직선택 동기	교직선택 동기	교직선택 동기	F	p	Scheffe	
	높음 ^a (n=16) M±SD	중간 ^b (n=28) M±SD	낮음 ^c (n=10) M±SD				
교사 효능감	수업 효능감	4.02±0.57	3.66±0.40	3.35±0.72	5.25	.008	a>c
	보건서비스 효능감	4.31±0.64	3.88±0.68	3.65±0.60	3.60	.035	a>c
	업무대인관계 효능감	4.07±0.60	3.64±0.43	3.56±0.58	4.43	.017	a>b,c
	지역사회연계 효능감	4.13±0.71	3.60±0.47	3.70±0.20	4.32	.019	a>b
	전체	4.13±0.53	3.70±0.37	3.56±0.55	6.17	.004	a>b,c
교직수업 만족도	4.25±0.64	3.82±0.74	3.32±0.37	4.20	.020	a>c	

본 연구에서 교직선택 동기 높음, 교직선택 동기 중간, 교직선택 동기 낮음에 포함되는 학생의 수가 각각 16명, 28명, 10명으로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라 교사효능감과 교직수업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비모수 검정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직선택 동기 높음 집단의 교사효능감 평균 순위는

37.22, 교직선택 동기 중간 집단 24.09, 교직선택 동기 낮음 집단은 21.50이었으며,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평균 순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8.88, p=.01$). Mann-Whitney U test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사효능감의 평균 순위는 교직선택 동기 높음 집단이 교직선택 동기 중간 집단과 교직선택 동기 낮음 집단에 비해 높았다.

<표 4>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

특성	구분	교사효능감		χ^2	p	사후분석
		평균순위				
교직선택 동기 그룹	1. 높음(n=16)	37.22	8.88	.01	1>2,3	
	2. 중간(n=28)	24.09				
	3. 낮음(n=10)	21.50				

다음으로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직선택 동기 높음 집단의 교직수업 만족도 평균 순위는 34.03, 교직선택 동기 중간 집단 26.43, 교직선

택 동기 낮음 집단은 20.05이었으며,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직수업 만족도 평균 순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5.21, p=.07$).

<표 5>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직수업 만족도 차이

특성	구분	교직수업 만족도		χ^2	p
		평균순위			
교직선택 동기 그룹	1. 높음(n=16)	34.03	5.21	.07	
	2. 중간(n=28)	26.43			
	3. 낮음(n=10)	20.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 보건의교사의 교직선택 동기, 교사효능감 및 교직수업 만족도를 파악하고,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사효능감과 교직수업 만족도의 차이 분석을 통해 교직 교육과정의 운영 및 개발 나아가 보건의교사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

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와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보건의교사의 교직선택 동기, 교사효능감, 교직수업 만족도 기술통계 분석 결과 우선, 예비 보건의교사의 교직선택 동기는 1-5점의 점수 범위에서 평균 3.77 ± 0.71 점이었으며, 교직선택 동기의 세 가지 유형 중 외재적 동기의 평균이

4.19±0.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내재적 동기(3.80±0.91), 이타적 동기(3.30±0.9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범대학 출신의 교사는 내재적 동기가 강한 반면 비사범대 출신의 교사는 타인의 권유로 교직을 선택하는 수동적 동기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조남근과 양윤중(1998)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 예비 보건교사들은 교직을 선택함에 있어서 적성, 사명감 등보다 경제적 측면, 근무조건, 안정성 등의 외재적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예비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은 1-5점의 점수 범위에서 평균 3.80±0.50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효능감의 네 가지 요인 중 보건서비스 효능감이 3.97±0.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연계 효능감(3.77±0.61), 업무대인관계 효능감(3.75±0.55), 수업효능감(3.71±0.5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서비스 효능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교사효능감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수준을 분석한 결과 보건서비스 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수업, 업무대인관계, 지역사회연계 순으로 나타난 이창란과 권낙원(2008)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 대상의 경력 및 경험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선행 연구에서도 교직 경력이 높을수록 교수 기술이 향상되어 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김석우, 2011; 김희진과 이분려, 1999)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건교사에게 보건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보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수업 효능감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낮은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직수업 만족도의 경우 1-5점의 점수 범위에서 평균 3.86±0.85점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직선택 동기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들(신정철 등, 2007; 이쌍철 등, 2012)의 경우에는 응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동기를 우선적 동기로 간주하여 내재적 동기 집단, 외재적 동기 집단, 이타적 동기 집단 중 하나로 분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이 경우 세 가지 동기를 복합적으로 살펴보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개인이 교직을 선택할 때에는 다양한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직선택 동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교직선택 동기의 세 요인인 내재적, 외재적, 이타적 동기가 모두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난 그룹, 세 요인 모두 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난 그룹, 세 요인 모두 평균값에 가장 근사한 값을 갖는 그룹으로 구분되었고 각각 '교직선택 동기 높음', '교직선택 동기 낮음', '교직선택 동기 중간'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동기들이 서로 상반되는 특성을 나타내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교직선택 동기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분산분석 및 한편, 비모수 검정법인 Kruskal-Wallis를 통해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사효능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사효능감 전체는 '교직선택 동기 높음' 그룹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직선택 동기 중간' 그룹, '교직선택 동기 낮음' 그룹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직선택 동기 높음' 그룹과 '교직선택 동기 중간' 그룹 및 '교직선택 동기 낮음'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교사효능감의 네 가지 요인인 수업 효능감, 보건서비스 효능감, 업무대인관계 효능감, 지역사회연계 효능감에서도 '교직선택 동기 높음' 그룹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연계 효능감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는 '교직선택 동기 중간' 그룹, '교직선택 동기 낮음' 그룹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능동적인 동기로 교사를 선택한 경우 교사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남궁미경(2011)의 연구 및 교직선택 동기 중 능동적 동기가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강혜진(2015)의 연구와 일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교직선택 동기가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다는 결과를 볼 때, 예비 보건의교사들이 교직선택 동기 특히 내재적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방안의 모색과 함께 예비 보건의교사를 선발할 때 교직선택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산분석을 통해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직수업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직선택 동기 높음' 그룹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직선택 동기 중간' 그룹, '교직선택 동기 낮음' 그룹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직선택 동기 높음' 그룹과 '교직선택 동기 낮음'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교직선택 동기가 높을수록 교직수업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비모수 검정법인 Kruskal-Wallis로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직수업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라 교직수업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교직선택 동기와 교육 만족도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구희정, 2015; 이쌍철, 2012) 있으며, 교직선택 동기는 교직에 입문하기 전에 결정되어 교직생활 중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교직선택 동기와 교직수업 만족도 간의 관계를 면밀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교직선택 동기는 교사효능감과 교직수업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직선택 동기 낮음' 그룹의 경우, 처음부터 교직선택 동기가 낮았던 것인지, 교직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것인지, 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멘토링, 학원 강사 등의 경험(신정철 등, 2007)을 통해 영향을 받은 것인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예비 보건의교사를 선발할 때 교직 인·적성 검사 반영 비율의 증가 및 심층면접의 강화를 통해 성적이 높은 사람보다 교직에 대한 선호와 열망이 높은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 지침을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비 보건의교사들이 보건의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건의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의 연계 및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예비 보건의교사들의 교직선택 동기, 교사효능감, 교직수업 만족도 수준을 파악해보고, 교직선택 동기 그룹에 따른 교사효능감 및 교직수업 만족도의 차이를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여자 간호대학의 예비 보건의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 수가 적고,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으므로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 및 예비 보건의교사들이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교직선택 동기, 교사효능감 그리고 교직수업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강양희. 중등 여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조직몰입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2006.
2. 강혜진. 예비특수교사의 교직선택 동기와 교직원 및 교사효능감 특성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2015; 6(4): 63-78.
3. 구희정. 사이버대학교 예비보육교사의 교직선택 동기 및 교육만족도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5; 15(1): 395-414.
4. 권은정, 김숙영.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보건의사의 소진과 열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

- 학회지 2017; 30(2); 103-112.
5. 김석우. 보건교사들의 교수효능감 실태 분석. *교사교육연구* 2011; 50(3); 152-159.
 6. 김에진. 예비교사가 지각하는 대학 교직수업의 중요도, 만족도, 실행도 분석[석사학위논문]. 대구: 계명대학교, 2015.
 7. 김희정, 박유영, 조은정. 유아교사의 대인관계 교수효능감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009; 13(1): 121-138.
 8. 김희진, 이분려. 유아 교사의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교사 내·외적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교사교육* 1999; 16(1): 161-181.
 9. 남궁미경. 유아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가 교직 몰입 및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2011.
 10. 송영희. 보건교사의 직무분석 근거에 따른 대규모 지원 인력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2011.
 11. 신정철, 송경오, 정지선. 초·중등 신입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 및 그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 2007; 34(2): 51-72.
 12. 이규영. 보건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사효능감, 교직원, 학생관의 관계. *한국자료분석학회* 2015; 17(5): 2751-2765.
 13. 이쌍철, 김혜영, 홍창남. 초등학교 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가 직무수행 및 교사만족에 주는 영향 분석. *초등교육연구* 2012; 25(4): 239-260.
 14. 이충란, 권낙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척도 개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8; 19(2): 247-259.
 15. 조남근, 양윤중. 교원양성배경·교직선택동기와 직무수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안암교육학연구* 1998; 4(2); 1-16.
 16. 최병임, 홍창남. 중등학교사의 교직선택 동기와 교사현신의 관계. *지방교육경영* 2013; 17(1): 21-43.
 17. 최주연. 초등교사의 교직선택 동기와 교직 현신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춘천: 춘천교육대학교, 2006.
 18. 한은숙, 김종두. 사범대학생의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003; 20(3): 313-335.
 19. Bandura, A.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1993;28:117-148.
 20. Chuene, K., Lubben, F., and Newson, G. The views of pre-service and novice teachers on mathematics teaching in South Africa related to their educational experience. *Educational Research* 1999;41(1):23-34.
 21. Hair, J. F., & Black, W. C.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0.
 22. Hanson, E. M.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MS: A simon and Schuster Company, 1996.
 23. Kyriacou, C., Coulthard, M. Undergraduates' views of teaching as a career choice, *Journal of Education for Teaching* 2000;26(2):117-126.
 24. Kyriacou, C., Koberi, M. Motivation to learn and teach english in Slovenia, *Educational Studies* 1998;24(3):345-352.
 25. Pinder, C. *Work Motivation in Organizational Behavior*. NJ: Prentice Hall, 1998.